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성공요인 탐색연구*

김 영 희¹⁾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지역에서 유학하는 조기 유학생들(초등학생 35명, 중학생 62명, 고등학생 4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업적,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여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데에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 수량화 방법론 I, 질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8개의 변인군(유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군, 가정환경 변인군, 유학 전 준비 변인군, 유학 후 진행 변인군, 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변인군, 친구관계 변인군, 여가생활 변인군, 심리내적 변인군)에 해당하는 총 28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군은 친구관계 변인군, 유학 후 진행 변인군, 심리내적 변인군 등이었다. 둘째, 조기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8개의 변인군에 해당하는 총 24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군은 심리내적 변인군, 유학 후 진행변인군, 친구관계 변인군 등이었다. 셋째, 선행된 양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면접 자료를 범주화 하고 질적 분석한 결과, 추출된 유학생생활 성공요인은 형제관계, 어머니와의 동거, 부모님의 자녀 교육관, 유학 이전의 외국생활 경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영어수준, 영어 공부기간, 유학기간, 유학에 대한 유학생 자신의 신념, 친구관계, 무시받거나 차별받은 경험, 교육환경, 현지에서의 학습시간, 여가생활, 성격특성, 자신감, 적응력, 독립심 등이었다.

주요어 : 조기 유학생, 유학생생활, 학업성취도, 심리적 적응

* 본 연구는 2003년도 LG연암문화재단의 교수해외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1) 교신저자 :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yhkim@daejin.ac.kr

I. 서 론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어린 나이에 일찍 다른 나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해외 유학이 주로 대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유행처럼 국내에 일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물려 초·중·고등학생의 조기 유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화 외에도, 소수의 상류층 자녀만이 관련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중산층 자녀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도피성 유학이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선진 교육체제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돌아와서 신흥 상류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도약형 유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학 대상국도 미국 일변도에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등으로 다양해졌다.

현재, 이들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음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난다. 1998년도에는 1,562명이던 조기 유학생이 2002년도에는 15,000여 명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20,000명이 넘었다(문화일보, 2004. 2. 19). 또 유학비 송금 등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유학·연수 수지는 해마다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을 갱신하는 실정으로(매일경제, 2003. 9. 5), 사상 처음 유학 비용이 2003년도에 2조원을 넘었고(문화일보, 2004. 2. 19), 2004년 5월까지 유학 비용만 10조원에 가깝다(머니투데이, 2004. 7. 28) 한다. 초·중·고생의 ‘나 홀로 유학’도 연간 1만 명이며, 부모 동반을 합치면 3만여 명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집계(2004. 1. 1)도 나와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초등학교 취학률이 98%에서 2003년도 96.5%로 떨어졌는데, 이 역시 조기유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최양숙, 2005, 재인용).

이러한 조기 유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관점은 다양한 교육경험을 쌓거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관점은 막대한 유학비 부담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 비동거 가족의 발생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 해외에서의 부적응이나 국내로 되돌아왔을 때의 부작용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처럼 조기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른 주요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이점과 문제점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조기 유학이 급속하게 늘어가 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기 유학과 조기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여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비춰진 단편적인 조기 유학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기 유학을 준비하거나 결정하는 학생과 그 부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기 유학과 조기 유학생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게 실행함으로써 조기 유학의 효과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떠한 동기에서든, 혹은 어떠한 과정으로든 조기 유학을 떠나는

유학생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유학 과정에 투입하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투자와 노력을 고려할 때, 조기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기 발전과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과제이다. 특히 천연 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유학을 통해 어려서부터 선진국의 발전된 교육을 접하고 다문화적 국제 감각을 익힌 유능한 인력이 많아진다면, 국익 차원에서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욱 쟁점화 되고 있는 이러한 조기 유학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학술적으로보다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기사나 특집 또는 르포 형식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학술적으로도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Dixie 대학교 유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의 선택과 결정과정, 그리고 유학의 동기, 유학생생활에서 겪는 문제들, 현지 적응방식 등에 대해 조사한 정순진(1996)의 연구결과, 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유학 선택과정에서의 부모의 개입정도와 본인의 적극성,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방식 등이었다. 다시 말해, 유학 선택 시 부모의 개입정도가 약할수록,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적극적, 자율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일상생활에서 한국인 유학생 집단의 몰입정도가 낮을수록, 미국 문화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유학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언어, 학업성취, 문화접변의 문제가 유학생들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언어였다. 또한 안병철(1996)은 북가주 지역에 유학 중인 한국 조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면접과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조기 유학의 현황, 즉 조기 유학생의 유학 동기, 유학 결정, 지역 선정 및 학업적응 관련 변수, 스트레스, 생활적응, 미국 생활과 미국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업적응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한 결과, 학업적응은 유학 전 학교성적,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 그리고 현재의 영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과 거주할 때 학업적응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친척과 함께 거주할 때였다. 또한 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한 결과, 생활적응은 가까이 지내는 외국 친구의 수, 학교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와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이 길수록 학업적응은 잘되나 생활적응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와 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서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과 거주할 때 생활적응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숙사, 친척 순이었다.

한편, 외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조기 유학 문제가 외국 학생 문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주요 관심은 문화간 적응 문제와 외국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하는데 있다. Simon과 그의 동료들(1990)은 부모를 따라 단기간 미국으로 이주한, 6세에서 12세 사이 아동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응이란 “아동들이 기억하는 최초의 문화 충격의 정도와 아동들이 보고한 현재의 만족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최초의 문화 충격이 클수록 아동의 현재 만족도는 떨어졌다(안병철, 1996, 재인용). 이 연구 결과는 아동의 문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아동의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Westwood와 Barker (1990)는 캐나다와 호주의 대학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었는데, 통제집단은 친구 맺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험집단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친구 맺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가 높았고, 탈락률이 낮았으며, 사회적 적응이 좋았다. 이 연구는 특히 유학국의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유학생들의 적응상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험적인 연구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상당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기 유학에 관한 연구들 중 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성공적인 유학생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문제는 해외 유학은, 특히 조기 유학은 학생 본인에게 발달과 성공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위험도 함께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유학의 동기를 조사한 몇몇 연구(김홍주, 2001; 안병철, 1996; 정순진, 1996)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며, 영어 능력과 특기를 키우기 위

해 조기 유학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문화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 학생을 포함한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인종차별, 언어문제, 적응의 어려움, 외로움,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주장 문제, 자국 문화와 타문화간 갈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질감 등 매우 다양한 어려움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in & Yi, 1977). 태어나서 살아온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공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들은 우선 언어가 다르고, 생활습관과 사회규범이 다르며,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접하게 된다. 그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문제들을 이중으로 겪게 된다. 적응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좌절감이나 우울감, 혹은 다른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야기시키며, 더러는 유학생들로 하여금 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퇴행적, 공격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중독 증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실제로 한국인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안병철, 1996)에서, 자기 주변의 학생 중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53% 정도가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유학이 기회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춘기를 맞은 조기 유학생들이 새로이 시작한 외국생활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으며, 그들이 낯선 생활환경, 학습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

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본인의 준비,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기 유학은 이제 특정 계층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며, 학업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일찍부터 학업에 매우 뛰어난 열정을 나타내는 몇몇 학생들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기 유학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교육적 대안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 현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측면은 제도화 하여 양성시키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유학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확한 조사와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업적, 심리적으로 잘 적응해서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데에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기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학 당사자의 개인 내적,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정책과제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안들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기 유학의 성공여부가 유학 당사자의 개인 내적,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유학의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유학생 본인과 그 가족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뉴질랜드가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고 전원적이며, 안정적이라는 국가 이미지로 인해 초·중등 과정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학지로 선호하여 이 시기의 조기 유학생들이 비율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뉴질랜드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라는 점,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유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은 비단 상류 계층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중류 계층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들어 증가하는 중류층의 조기 유학의 일면도 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지역에 유학 중인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조기 유학의 대중화와 맞물려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의 심

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성공적인 유학생들 사례에서 나타난 유학생들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지역에 유학하는 한국인 조기 유학생 총 13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조기 유학생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조기 유학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호에서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조기로 볼 것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개념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규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기 유학생을 해외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김홍주(2001)는 조기 유학이란, 법적 의미로 보면 초·중등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의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부모의 파견근무, 유학, 연수 등으로 인해 동행한 자녀들이 현지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조기 유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외국에서의 수학

행위만을 순수한 조기 유학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한준상과 그의 동료들(2002)은 조기 유학을, ‘초·중·고등 단계 과정의 학생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외국 현지의 학교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기 유학에 대한 위의 두 개념과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호에 근거하여, 또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자녀의 유학으로 인한 비동거 가족형태, 즉 기러기 가족의 현저한 증가 현상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유학을 정의하고 적용하였다. 즉 조기 유학이란, ‘초·중·고등 단계의 학생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않고 외국의 현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 유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7명, 여학생이 81명이고,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생이 35명, 중학생이 62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42명 이었다. 이들은 오uckland와 그 인근 지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로서, 그 지역에 소재한 유학원, 각종 학원과 같은 사설기관 및 단체, 교회 등을 통해 소개받았다. 일대일 만남과 안내문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그런 다음, 연구에의 참여 의사를 보인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 생활 성공요인을 밝히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수집, 파악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58개의 독립변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크게 4개의 변인군인 배경 변인군, 유학관

런 변인군, 일상생활 변인군, 심리내적 변인군으로 구조화한 후, 다시 8개의 하위 변인군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질문문항과 변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 박사 3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변인군은 유학생의 배경 변인으로 유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7문항)과 가정환경 변인(11문항)을 추출하였고, 유학관련 변인으로는 유학 전 준비 변인(10문항), 유학 후 진행 변인(7문항), 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변인(3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변인으로는 친구관계 변인(10문항)과 여가활동 변인(3문항)으로 나누었으며, 심리내적 변인에는 성격유형,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발달, 자기효능감, 지각된 자신감, 그리고 EQ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성공 정도를 보기 위한 종속변인으로는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도에서는 현재의 회화능력과 작문능력, 영어책 읽기 능력, 현재 자신의 수업태도, 수업이해 정도, 학교 숙제를 혼자 할 수 있는 정도, 학교 시험문제의 이해 정도, 그리고 유학 후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의 성적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적응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을 측정하였다. 각 변인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질문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은 표 1과 같다.

성격유형 검사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ion)

Katherine Briggs와 Isabel Myers에 의해 만들어진 MBTI의 한국어판은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해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되고 표준화되었다. 한국어판 MBTI의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는 EI척도가 .77, SN척도가 .81, TF척도가 .78, JP척도가 .82로 나타났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EI척도가 .86, SN척도가 .85, TF척도가 .81, JP척도가 .8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MBTI 영어판과 한국어판 간의 구성 타당도는 EI척도가 .91, SN척도가 .90, TF척도가 .90, JP척도가 .91로 나타났고, 문항분석을 통해 변별 타당도를 조사해 본 결과, 문항 비중의 예언도가 E .71, I .76, S .77, N .77, T .71, F .91, J .76, P .86으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아동용 성격유형 검사(MMTIC: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아동용 성격유형 검사의 한국판 표준화 작업은 김정택과 심혜숙(1993)에 의해 이루어졌다.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MMTIC의 척도 개발 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EI척도가 .76, SN척도가 .65, TF척도가 .63, JP척도가 .63이며, 아동용 성격진단검사(표 1, 중앙적성출판사) 간의 구성타당도는 .58로 검증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상황중심의 지지 척도,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며,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의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로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

표 1.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질문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질문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종속 변인	학업성취도	현재의 회화능력, 작문능력, 영어책 읽기 능력, 현재 자신의 수업 태도, 현재의 수업이해 정도, 학교 숙제를 혼자 할 수 있는 정도, 학교 시험문제 이해정도, 유학 후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성적
	심리적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배경 변인	유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성별, 학년, 한국에서의 가족형태, 현재의 거주 형태, 형제순위, 형제 수, 종교
	가정환경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종교, 학력, 직업,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유학 관련 변인	유학 전 준비	유학을 결정한 사람, 유학지 선정과정, 유학 수속과정, 유학 전 영어 공부기간, 유학 전 회화능력, 작문능력, 영어책 읽기능력,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에서의 방과후 학습시간, 유학 전 해외 방문 경험
	유학 후 진행	뉴질랜드로 유학 온 시기, 유학 후 학교생활 만족도와 방과후 학습 시간, 유학 전, 후의 학습시간과 학습흥미 비교,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
독립 변인	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유학 동기,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
일상 생활 변인	친구관계	연락하는 통신수단, 가까이 지내는 한국인 친구, 방과 후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횟수,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주제,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 친구, 방과 후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횟수,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주제,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초대받은 경험,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오거나 초대한 경험, 외국인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
	여가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업 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 하루의 여가시간,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
	심리내적 변인	성격유형(EL, NS, FT, JP),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심리사회적 발달(충동통제, 정서상태, 신체상, 대처능력, 정신병리, 우수한 적응능력, 친구관계, 가족관계), 자기 효능감, EQ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지각된 자신감

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였고, 각 하위 척도별로는 정서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86, 물질적 지지 .87, 평가적 지지 .89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발달 척도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그리고 Jarcho(1984)가 개발한 SIQYA(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다시 이춘재, 오가실과 정옥분(1991)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9개 하위영역의 98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 및 교육 목표 영역을 제외한 8개 하위영역의 8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였고, 하위 변인별로는 충동통제 .60, 정서상태 .82, 신체상 .73, 대처능력 .70, 정신병리 .74, 우수한 적응능력 .61, 친구관계 .83, 가족관계 .79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Shere, Maddux, Mercandate, Pretice, Jacobs와 Roger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진 Shere 등(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원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86,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유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위의 두 가지 하위변인 중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

수(Cronbach α)는 .82였다.

지각된 자신감 척도

지각된 아동의 자신감은 이혜신(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의 아동 자신감 척도를 사용하여 조기 유학생의 부모 및 가디언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심리검사 연구소의 담당 전문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각된 자신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였다.

정서지능(EQ)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문용린(1996)이 개발한 네 가지 유형의 검사 중 초등학교 고학년용과 중·고등학교용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이었고, 하위 변인별로는 정서인식 .82, 정서표현 .78, 감정이입 .74, 정서조절 .79, 정서활용 .62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Sandhu와 Asrabadi(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번역한 이승중(1995)의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승중(1995)의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였다.

생활 스트레스 척도

이경진(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일부 보완하고 첨가하여 만든,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7이었다.

생활만족도 척도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11개 문항의 만족도 척도를 토대로 유학생의 제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 생활 성공요인을 밝히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수집, 파악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59개의 변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질문문항과 측정도구를 질문지로 구성하여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수집된 변인을 총 8개의 큰 범주로 나누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깊은 질적 자료를 수집할 면접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 값(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자신감)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목록을 만들고, 동시에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추천받은 후, 두 절차에서 모두 표집된 학생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조기 유학생과 학부모 혹은 가디언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동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분포를 알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유학에 대한 성공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수량화 방법론 I을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조기 유학생의 성공요인을 크게 인구학적 배경 변인, 유학관련 변인, 일상생활 변인, 심리내적 변인으로 범주화 시키고 각 범주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각 변인에 대한 F 값이 1보다 큰 변인¹⁾을 추출하였다(허명희, 1998).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먼저 각각의 변인군(인구학적 배경 변인, 유학관련 변인, 일상생활 변인, 심리내적 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Ad-R^2$ 을 통해 비교 설명하고, 편상관 계수를 통해 각 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지니는 기여도의 정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하위범주를 추출하여 설명하였다.

수량화 방법론에서는 수량화 값을 통해 하위범주의 중요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범위와 편상관 계수를 통해 변인이 지니는 기여도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편상관 계수를 통해 변인의 기여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범위와 편상관 계수의 통계적인 목적이 같고, 본 연구의 변인 특성(질적 변인과 양적 변인이 모

1) 수량화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설명력이 미미한 설명변량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분산분석에서는 F 통계량의 유의성을 보지만 수량화 방법과 같은 탐색적 자료분석에서는 F 값의 절대적인 크기(예컨대 1)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변량을 제외시키기도 한다(허명희, 1999).

두 독립변인으로 사용)상 범위는 양적 변인을 질적 변인으로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상관 계수로 변인의 기여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성공적인 유학생 사례로 최종 표집된 18명의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주요 요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선행된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면접 자료를 범주화 하고 질적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성공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수량화 방법론 I을 통해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추출하였다. 총 8개의 변인군에 해당하는 59개의 요인 중 학업성취도에 대해 성공요인으로 추출된 변인은 28개,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변인은 23개로 추출되었다. 각 변인군과 변인 하위범주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기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8개의 변인군에 해당하는 총 28개로 나타났다. 먼저 수정된 R^2 값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변인군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변인군(69.58%)과 유학 후 진행 변인군(67.07%), 그리고 심리내적 변인군(46.86%) 이

었다. 다시 말해, 유학지에서 친구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유학 후 학업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리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기 유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편상관 계수와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각 변인군에 해당하는 변인과 하위 범주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기 유학생 배경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첫째,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학생의 배경 변인군 중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학생의 종교로 편상관 계수는 .34였다. 그리고 현재의 거주형태(.27)와 형제 수(.23)도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심화 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불교나 무교인 유학생, 현지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 그리고 외동이인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 변인군에서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아버지의 종교로 편상관 계수는 .27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종교(.24)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22), 어머니의 학력(.21), 아버지의 학력(.19)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가 각각 불교와 무교인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하에 속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각각 고졸과 대졸인 경우, 조기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기 유학생 배경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범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계 수	전체 설명량 (Ad-R2)
유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현재 거주 형태	엄마와 함께	83	0.04	1.00	.2949
		홈스테이	34	-2.17	-1.31	
		친척, 아는 분 집	13	-2.85	-1.99	
		학교 기숙사	.	.	0.27	
		기타	6	0.00	0.86	
	형제 수	1명	60	3.54	1.49	
		2명	32	-0.22	-2.27	
		3명 이상	8	0.00	-2.05	
	종교	기독교	75	-2.07	-0.53	
		불교	13	1.51	3.05	
		천주교	26	-2.95	-1.41	
		무교	24	0.00	1.54	
		기타	3	-7.43		
가정환경	아버지 종교	기독교	54	7.96	0.53	.2887
		불교	14	8.58	1.11	
		천주교	21	7.35	-0.08	
		무교	47	7.00	-0.43	
		기타	3	0.00	-7.43	
	어머니 종교	기독교	64	-2.52	-0.24	
		불교	20	-3.04	-0.76	
		천주교	31	-3.07	-0.79	
		무교	24	0.00	2.28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	17	-0.70	-0.56	
		전문대 졸	5	-3.69	-3.55	
		대학교 졸	91	0.13	0.27	
		대학원졸업 이상	23	0.00	0.14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	29	1.95	2.25	
		전문대 졸	5	0.59	0.89	
		대학교 졸	88	-1.14	-0.84	
		대학원 졸업이상	12	0.00	0.3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중의 중, 하	35	2.05	0.72	
		중의 상	67	0.54	-0.79	
		상의 중, 하	21	3.08	1.75	
		상의 상	7	0.00	-1.33	

학업성취도에 대한 유학관련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첫째,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학 전 준비 변인군 중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학 전 영어 공부기간으로 편상관 계수는 .23이었다. 그 다음으로 유학 전 영어 책읽기 능력(.22), 유학 전 회화능력(.20)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뉴질랜드 지역에 유학하는 조기 유학생들 중 유학 전에 2-4년 정도 영어공부를 한 유학생, 유학 전에 이미 영어책을 자신있게 잘 읽을 수

있었고, 대화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회화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둘째, 유학 후 진행 변인군 중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학 온 학년이었으며, .50으로 편상관 계수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유학 후 학교생활 만족도(.37),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29), 유학 후 뉴질랜드에서의 방과 후 학습시간(.21)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조기 유

표 3. 학업성취도에 대한 유학관련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범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유학 전 준비 변인	유학 전 영어 공부 기간	1년 미만	23	2.74	0.86	0.23	.2611
		1년 이상-2년 미만	30	1.83	-0.05		
		2년 이상-4년 미만	23	3.32	1.44		
		4년 이상	26	2.17	0.29		
		안했음	31	0.00	-1.88		
	유학지 선정 과정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57	1.90	-0.20	0.20	
		유학원에서 추천해서	2	-3.04	-5.14		
		부모님이 알아보고	63	2.52	0.42		
		주위의 권유	8	0.00	-2.10		
	유학 전 회화 능력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74	-7.13	-0.83	0.20	
		어느 정도 가능했다	60	-5.70	0.60		
		대화에 불편이 없었다	4	0.00	6.30		
		자신있게 잘 했다	0	.			
	유학 전 영어 책읽기 능력	전혀 읽을 수 없었다	48	5.01	-1.60	0.22	
		어느 정도 가능했다	71	2.58	0.83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었다	16	2.97	0.44		
		자신있게 잘 읽었다	3	0.00	3.41		

표 3. 계속

변인		범 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중심화)	값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유학 온 학년			139	-0.39		0.50	
유학 후 진행변인	유학 후 학교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	-3.55	-1.42		
		만족하지 않는다	6	-3.23	-1.10		
		그저 그렇다	36	-2.06	0.07	0.37	
		만족한다	62	-2.95	-0.82		
		매우 만족한다	28	0.00	2.13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 받는다고 느낀 경험	항상 느낀다	12	-0.01	-0.93		
		자주 느낀다	7	-0.92	-1.84		.6707
		가끔 느낀다	47	1.30	0.38	0.29	
		거의 느끼지 않는다	44	1.68	0.76		
		느낀 적 없다	29	0.00	-0.92		
	유학 후 뉴질랜드에서의 방과후 학습시간	1시간 미만	26	-1.94	-0.59		
		1-2시간	57	-1.45	-0.10		
		3-4시간	36	-1.40	-0.05	0.21	
		5시간 이상	17	0.00	1.35		
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변인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	유학 오길 매우 잘했다	44	4.57	1.56		
		잘한 것 같다	64	3.11	0.10		
		그저 그렇다	13	1.86	-1.15	0.34	0.1987
		조금 후회한다	13	-0.88	-3.89		
		매우 후회한다	3	0.00	-3.01		

학생들은 낮은 학년 때 유학을 온 유학생, 유학 후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유학생,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유학생, 그리고 뉴질랜드에서의 방과후 학습시간이 5시간 이상인 유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셋째, 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변인군 중에서는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이 편상관 계수 .34로 유일한 주요 변인이었다. 구

체적으로는, 유학 오길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유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일상생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첫째,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친구관계 변인군 중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방과 후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횟수 (.36)가 가장 높은 편상관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 친구의 수(.35)와 외국인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32),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초대한 경험(.32)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방과후에 한국인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 유학생, 10명 이상의 외국인 친구를 두어 폭넓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와 교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초대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둘째, 여가생활 변인군 중에서는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편상관계수 .17로 중요한 변인이었다. 즉, 유학지에서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학업적 성취가 높았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심리내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표 5에서, 편상관 계수를 통해 조기 유학생의 심리내적 변인군 중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3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충동통제(.33), 지각된 자

표 4. 학업성취도에 대한 일상생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범 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친구관계 변인	방과 후 한국인 친구와 만나는 횟수	매일 만난다	7	-3.20	-1.65	0.36	.6958
		자주 만난다	25	-2.20	-0.65		
		일주일에 1-2번만난다	56	-2.46	-0.91		
		거의 안 만난다	51	0.00	1.55		
	외국인 친구교제의 어려움 정도	어려움이 많다	25	-3.59	-1.44	0.32	
		어려움이 약간 있다	50	-2.98	0.83		
		어려움이 별로 없다	46	-1.25	0.90		
		어려움이 전혀 없다	17	0.00	2.15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 친구	0명	13	-5.02	-3.80	0.35	
		1-2명	35	-1.37	-0.25		
		3-5명	52	-0.63	0.49		
		6-9명	16	-0.62	0.50		
		10명 이상	23	0.00	1.12		
	외국인 친구가	없다	74	-2.76	-1.28	0.32	
		있다	64	0.00	1.48		
여가생활 변인	교회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없다	69	-1.32	-0.66	0.17	.3488
		있다	69	0.00	0.66		

신감(.30), 성격유형 중 JP(.25), 대처능력(.24), 물질적 지지(.23), 정서조절(.23), 친구관계(.21), 정서상태(.17), 정서표현(.14)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수량화 값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유학생, 그리고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잘 통제하는 유학생, 전반적인 유학생생활에서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유학생,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및 외부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에서 볼 때, 인식형의 성격유형을 지닌 유학생,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유학생,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균형 있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며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 데에 정서를 적절히 잘조절하는 유학생, 불안이나 우울이 적고 좋은 정서상태를 지닌 유학생,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유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반면, 물질적 지지

및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즉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통한 지지를 많이 받는 유학생의 경우,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 뛰어난 유학생의 경우, 그러한 심리내적 변인은 오히려 낮은 학업성취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뉴질랜드 지역 조기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8개의 변인군에 해당하는 총 24개로 나타났다. 먼저 수정된 R^2 값을 통해 심리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변인군을 살펴보면, 심리내적 변인군(72.78%), 유학 후 진행 변인군(61.21%), 친구관계 변인군(60.42%) 이었다. 다시 말해, 어떤 심리내적 변인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지, 유학 후 생활

표 5. 학업성취도에 대한 심리내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계 수	전체 설명량 (Ad-R2)
성격유형	J	37	-2.08	0.25	.4686
	P	75	0.00		
자기 효능감		139	0.26	0.34	
사회적지지	물질적 지지	139	-0.27	0.23	
심리사회적 발달	충동통제	139	-0.33	0.33	
	정서상태	139	0.20	0.17	
	대처능력	139	0.26	0.24	
	친구관계	139	-0.18	0.21	
EQ	정서표현	139	0.22	0.14	
	정서조절	139	0.22	0.23	
지각된 자신감		139	0.12	0.30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학지에
서 친구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등이
조기 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편상관 계수와 중심화된 수량화 값
을 통해 각 변인군에 해당하는 변인과 하위
범주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기 유학생 배경 변 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표 6에서 보듯이, 조기 유학생의 배경 변인
군 중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력이 큰 변
수는 학년(.37)과 형제 수(.30)였다.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과 초

표 6.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기 유학생 배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범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유학생의 인구학적 변인	학년	초등6	34	31.88	12.60	0.37	.3563
		중 1	22	32.15	12.87		
		중 2	20	18.74	-0.54		
		중 3	20	11.60	-7.68		
		고 1	15	7.33	-11.95		
		고 2	19	8.00	-11.28		
		고 3	8	0.00	-19.28		
	형제 수	1명	60	-88.64	-15.99	0.30	
		2명	32	-61.13	11.62		
		3명 이상	8	0.00	72.75		
가정환경 변인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	29	-34.15	-9.39	0.26	
		전문대 졸	5	0.85	25.61		
		대학교 졸	88	-26.50	-1.74		
		대학원 졸업 이상	12	0.00	24.76		
	가정의 경제적 수준	중의 중, 하	35	-9.15	11.91	0.35	.3203
		중의 상	67	-32.60	-11.54		
		상의 중, 하	21	-11.11	9.95		
		상의 상	7	0.00	21.06		
		매우 높음	81	-27.15	-1.59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43	-29.70	-4.14	0.18	
		보통	12	0.00	26.36		
		낮음	.				
		매우 낮음	.				

등학교 6학년인 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이 그 보다 높은 학년의 유학생들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형제 수가 3명 이상이거나 2명인 유학생이 독자인 경우보다 높은 심리적 적응을 보였다.

둘째, 가정환경 변인 중 심리적 적응에 영

향력이 큰 변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35), 어머니의 학력(.26),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18)였다.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의 상일 때 적응력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인 경우와 대학원 졸업

표 7. 심리적 적응에 대한 유학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범 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유학 준비 변인	본인	19	15.77	12.27		
	유학을 결정한 사람	아버지	21	8.81	5.31	
		어머니	14	-13.66	-17.61	0.23
		부모	35	4.91	1.41	
		본인과 부모님이 의논해서	44	0.00	-3.50	
	유학지 선정 과정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57	19.75	-0.78	
		유학원에서 추천해서	2	-17.15	-37.68	0.21
		부모님이 알아보고	63	25.03	4.50	
		주위의 권유	8	0.00	-20.53	
	유학 전 영어 공부 기간	1년 미만	23	28.33	14.13	
		1-2년	30	10.93	-3.27	
		2-4년	23	19.83	5.63	0.27
		4년 이상	26	17.40	3.20	
		안했음	31	0.00	-14.20	
	유학 전 회화 능력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74	-12.82	6.56	
		어느 정도 가능했다	60	-28.76	-9.38	0.17
		대화에 불편이 없었다	4	0.00	19.38	
		자신있게 잘했다		.		
	유학 전 작문 능력	영어로 글 쓰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70	11.03	-10.55	
		어느 정도 가능했다	63	35.02	13.44	0.28
		글쓰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5	0.00	-21.58	
		자신있게 잘 썼다				

표 7. 계속

변인		범 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유학 후 진행과 정변인	유학 온 학년		139	-3.14		0.46	.6121
		1년 미만	27	16.02	11.01	0.22	
	뉴질랜드에서	1-2년	62	4.14	-0.87		
	유학한 기간	2-4년	44	-0.07	-5.08		
		4년 이상	4	0.00	-5.0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	-33.17	-20.58		
	유학 후	만족하지 않는다	6	-37.51	-24.92		
	학교생활	그저 그렇다	36	-23.47	-10.88		
	만족도	만족한다	62	-8.55	4.04		
		매우 만족한다	28	0.00	12.59	0.35	
	뉴질랜드	항상 느낀다	12	-28.39	-12.22		
	학교에서	자주 느낀다	7	-37.35	-21.18		
	교사에게	가끔 느낀다	47	-21.59	-5.42		
	차별대우	거의 느끼지 않는다	44	-14.34	1.83		
	받는다고	느낀 적 없다	29	0.00	16.17	.2096	
느낀 경험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51	-10.94	2.78			
	유학을 통해	자립심과 책임감	10	-9.55	4.17		
	궁극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자질	20	-24.47	-10.75		
	얻고자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41	-15.64	-1.92		
	하는 것	필요한 능력과 학벌					
		기타	8	0.00	13.72		
		유학 오길 매우 잘했다	44	4.57	1.56		
	유학에 대한	잘한 것 같다	64	3.11	0.10		
	본인의	그저 그렇다	13	1.86	-1.15		
	지금 생각	조금 후회한다	13	-0.88	-3.89		
		매우 후회한다	3	0.00	-3.01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일 때, 높은 심리적 적응을 나타냈다.

심리적 적응에 대한 유학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첫째, 표 7에서 보듯이 유학준비 변인 중

심리적 적응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학 전 작문능력으로 편상관 계수가 .28이었고, 다음으로 영어 공부기간(.27), 유학을 결정한 사람(.23), 유학지 선정 과정(.21), 유학 전 회화능력(.17)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본인이 유학을 결정한 경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유학지를 선택한 경우, 유학 전 영어를 공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유학 전에는 회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유학 전에 영어로 글쓰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경우의 유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였으며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유학 후 진행과정 변인 중 초기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유학 온 학년으로 편상관 계수가 .46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유학 후 학교생활 만족도(.36),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35)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추출되었다.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학년 때 유학을 온 유학생, 유학 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유학생,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이 없는 유학생, 유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유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였다.

셋째, 유학에 대한 동기나 가치관 변인 중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이 편상관 계수 .28,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20으로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심과 책임감, 그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얻고자 하며, 유학생 본인이

유학 오길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심리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에 대한 일상생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수량화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총 4개의 변인이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편상관 계수와 수량화 값을 통해 각 변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먼저 가까이 지내는 한국인 친구의 수(.4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외국인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39),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 친구의 수(.30)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가까이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없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와 교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10명 이상인 유학생들이 높은 심리적 적응을 보였다.

둘째, 여가생활 변인 중에서는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편상관 계수 .21로 중요한 변인으로 추출되었다. 즉, 유학생들이 유학지에서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였다.

심리적 적응에 대한 심리내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공변량 분석형 수량화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총 7개의 변인이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생의 심리내적 변인 중 심리적 적응에 영향

표 8. 심리적 적응에 대한 일상생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하위변인	범주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R2)
친구관계 변인	가까이 지내는 한국인 친구	0명	11	20.40	14.51	0.44	.6042
		1-2명	34	-6.27	-12.16		
		3-5명	42	12.65	6.76		
		6-9명	20	13.19	7.30		
		10명 이상	30	0.00	-5.89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 친구	0명	13	-7.14	9.10	0.30	
		1-2명	35	-13.84	2.40		
		3-5명	52	-26.09	-9.85		
		6-9명	16	-20.18	-3.94		
		10명 이상	23	0.00	16.24		
	외국인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	어려움이 많다	25	-35.30	-23.58	0.39	
		어려움이 약간 있다	50	-16.64	-4.92		
		어려움이 별로 없다	46	2.10	13.82		
		어려움이 전혀 없다	17	0.00	11.72		
여가생활 변인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없다	69	-14.25	-7.13	0.21	.2632
		있다	69	0.00	7.13		

표 9. 심리적 적응에 대한 심리내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빈도	원수량화 값	수량화 값 (중심화)	편상관 계수	전체 설명량 (Ad-Ad-R2)
성격유형	N	36	7.85	5.35	0.16	.7278
	S	77	0.00	-2.50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39	-1.43		0.17	
	평가적 지지	139	1.73		0.20	
심리사회적 발달	정서상태	139	1.93		0.22	
	정신병리	139	1.22		0.14	
EQ	정서인식	139	-2.75		0.30	
	정서활용	139	2.77		0.22	

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정서 인식(.30)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서상태(.22)와 정서활용(.22), 평가적 지지(.20), 정서적 지지(.17), 성격 유형 중 NS(.16), 정신병리(.14)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다시 말해, 불안이나 우울이 적은 더 나은 정서상태를 지닌 유학생,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유학생,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통한 지지를 많이 받는 유학생, 정보의 종류와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직관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유학생, 혼동감이나 과대망상과 같은 정신병리를 덜 지닌 유학생들이 심리적 적응을 잘했다. 반면, 정서인식 및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성공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부록에서는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기 유학생 중 양적 자료 분석결과 유학생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위 30% 집단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어머니나 현지 가디언에 의해 지각된 만족감이 높으며, 또한 교사나 지인 등 주변 인물로부터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한다고 추천된 18명의 조기 유학생들을 일대일 면접을 하여 자료를 구한 후 요약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면접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학업과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선행된 양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주화 하였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로 제시하였다.

첫째,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성공요인을

질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본 결과, 먼저 유학생의 배경 변인 중 형제, 어머니와의 동거,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 교육관, 외국생활 경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영어수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을 새로이 시작하고 적응하는데 있어 유학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위 형제는 유사한 경험을 한 선배로서 대처방식을 가르쳐주거나 상담자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하는 역할, 또는 영어나 수학을 직접 가르쳐 주는 등 학습 도우미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 그리고 손아래 형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절친한 친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또는 현지 가족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지지원이 되어 주면서, 학업과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손위 형제가 아래 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따라온 기러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유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존재가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즉, 어머니는 우선 자녀 곁에 있음으로 해서 예민한 사춘기를 거치고 있는 유학생들이 보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안정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거나 유학지에서의 보다 나은 학업성취를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과외 수업을 받게 하는 등 직접적으로 유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힘든 유학생생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자녀의 현지 적응과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공부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

서 하도록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유학생 생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고, 이전에 외국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 외국의 낯선 환경을 처음 접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자세로 변하여 성공적인 유학생생활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경제적 여건이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수조건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생생활을 뒷받침해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유학생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인지하는 것이 적응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유학생 본인의 자각이 스스로 더욱 분발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유학을 위해 함께 외국생활을 시작한 어머니가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영어를 잘 못할 때, 이러한 환경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첫째 자녀의 경우 어머니 대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능력을 키우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가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 유학관련 변인은 영어공부 기간과 유학기간, 그리고 유학에 대한 유학생 자신의 신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학 이전 한국에서 영어를 익힌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적응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학지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 영어를 익힌 것이 더욱 도

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학기간과 관련하여, 유학지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이전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힘든 시간으로 인해 순간순간 유학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학생 자신의 신념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즉, 부모나 교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념이 강한 조기 유학생이 그렇지 않은 유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양적 분석에서 유학을 스스로 결정한 유학생의 적응이 그렇지 않은 유학생에 비해 성공적이었던 결과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유학생 본인의 신념, 의지가 없이 시작한 유학은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조기 유학생의 일상생활 변인 중 친구관계, 무시나 차별받은 경험, 교육환경, 그리고 현지에서의 학습시간, 여가생활 등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많은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변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한국인 친구들은 발달상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함께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고, 외국인 친구들은 유학생 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어를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공부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지 않고 대신 외국인 친구들과 접촉하고 놀면서 익힌 영어가 실제 학습과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조기 유학생들에게

있어 동양인 이라고 무시 받은 경험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유학생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있어 이전의 그런 경험은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외에, 뉴질랜드에서 조기 유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교육환경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유학생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하고 유학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작용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유학생활동으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방식과 수업방식,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주변 환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는 유학생들에게서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를 이끌어 내어 높은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으로 유도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동으로 이끌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및 생활환경은 성공적으로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는 조기 유학생들의 학습시간과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국에서와 같은 놀 거리 문화가 많지 않은 유학지에서 유학생들은 환경 상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학교 과제와 예체능 활동, 그리고 독서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학습시간으로 정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상생활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강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방식이나 자극적인 놀이문화가 만연한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유학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유학의 바람직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의 심리적 특성도 중

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판단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유학생들이 그리고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독립심이 강한 유학생들이 유학생활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다. 살아온 환경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외국의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기 보다는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감으로, 아니면 도전의식에서 서툴게라도 스스로 궁금한 것이나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학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등도 잘 이끌어 결국에는 학업성취 및 심리적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키워 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력과 독립심이 조기 유학생들로 하여금 낯선 유학지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와 혼자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유학을 이루게 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뉴질랜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유학생활동에 작용하는 성공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들의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병행한 이유는,

조기 유학생의 적응이나 유학생생활에서의 성공은 복잡한 측면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학생 개인의 특성, 타고난 잠재력, 유학을 위한 준비상황, 그들을 둘러싼 환경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형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이 그들의 유학생생활에 작용하는 성공요인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면접을 하고 질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수량화 방법론 I과 질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8개 변인군에 해당하는 총 28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의 종교, 현재 거주형태, 형제 수(인구학적 배경 변인군),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가정환경 변인군), 유학 전 영어 공부기간, 유학 전 영어 책읽기 능력, 유학 전 회화능력, 유학지 선정 과정(유학 전 준비 변인군), 유학 온 학년, 유학 후 학교생활 만족도,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 유학 후 방과 후 학습시간(유학 후 진행 변인군),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변인군), 방과 후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횟수, 가까이 지내는 외국인 친구의 수, 외국인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도,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초대할 경험(친구관계 변인군),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여가생활 변인군), 자기효능감, 지각된 자신감, 성격유형, 심리사회적 발달, 사회적 지지, 정서지능(심리

내적 변인군) 이었다.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불교나 무교인 유학생, 현지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 외동이인 유학생,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가 각각 불교와 무교인 유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의 중·하에 속하는 유학생,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각각 고졸과 대졸인 유학생, 유학 전에 2-4년 정도 영어공부를 한 유학생, 유학 전에 이미 영어책을 자신있게 잘 읽을 수 있었고, 대화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회화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생, 유학지를 부모님이 알아보고 선정한 유학생, 낮은 학년 때 유학을 온 유학생, 유학 후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유학생,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유학생, 그리고 방과 후 학습시간이 5시간 이상인 유학생, 유학 오길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유학생, 방과 후에 한국인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 유학생, 10명 이상의 외국인 친구를 두어 폭넓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와 교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초대할 경험이 있는 유학생, 유학지에서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유학생,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학생,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잘 통제하는 유학생, 전반적인 유학생생활에서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유학생,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및 외부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에서 볼 때, 인식형의 성격유형을 지닌 유학생,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유학생,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균형있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며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 데에 정서

를 적절히 잘 조절하는 유학생, 불안이나 우울이 적고 좋은 정서상태를 지닌 유학생,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유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둘째, 조기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8개 변인군에 해당하는 총 24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과 형제 수(인구학적 배경 변인군),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가정환경 변인군), 유학 전 작문능력, 영어 공부 기간, 유학을 결정한 사람, 유학지 선정 과정, 유학 전 회화능력(유학 전 준비 변인군), 유학 온 학년, 유학 후 학교생활 만족도,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 유학기간(유학 후 진행 변인군), 유학에 대한 본인의 지금 생각,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유학에 대한 동기 및 가치관), 가까이 지내는 한국인 친구와 외국인 친구의 수, 외국인 친구 교제의 어려움(친구관계 변인군), 교외단체 및 동아리 활동(여가생활 변인군), 성격유형,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발달, 정서지능(심리내적 변인군) 이었다.

중심화된 수량화 값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하위 범주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유학생, 형제 수가 3명 이상이거나 2명인 유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의 상인 유학생,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인 유학생,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인 유학생, 유학 전에 영어로 글쓰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유학생, 유학 전 영어를 공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유학생, 본인이 유학을 결정한 유학생,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유학지를 선택한 유학생, 유학

전에는 회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유학생, 저학년 때 유학을 온 유학생, 유학 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유학생,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경험이 없는 유학생, 유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유학생, 본인이 유학 오길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유학생,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심과 책임감, 그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얻고자 하는 유학생, 가까이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없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와 교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학생, 외국인 친구가 10명 이상인 유학생, 유학지에서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하는 유학생, 불안이나 우울이 적은 더 나은 정서상태를 지닌 유학생,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유학생,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통한 지지를 많이 받는 유학생, 정보의 종류와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직관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유학생, 혼동감이나 과대망상과 같은 정신병리를 덜 지닌 유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였으며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성공적인 유학생 사례로 최종 표집된 18명의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선행된 양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면접 자료를 범주화 하고 질적 분석한 결과, 추출된 유학생생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유학생의 배경 변인과 관련하여 추출된 성공요인은 형제, 어머니와의 동거, 공부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부모님의 자녀 교육관, 유학 이전의 외국 생활 경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영

어수준 등이었으며, 유학관련 변인과 관련된 성공요인은 영어 공부기간, 유학기간, 그리고 유학에 대한 유학생 자신의 신념 등이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변인과 관련하여 친구관계, 무시나 차별받은 경험, 교육환경, 현지에서의 학습시간, 여가생활 등이 성공요인으로, 그리고 심리내적 변인과 관련하여 성격특성, 자신감, 적응력, 독립심 등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생활에 있어서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실제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 연구결과에 대조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의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을 포함한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안병철, 1996; 정순진, 1996)의 결과나 조기유학에 대한 여러 기사 및 문헌(강지연, 2002; 김홍주, 2001; 뉴스플러스, 1997. 1. 30.; 머니투데이, 2004. 5. 28.; 송인호, 2001; 신동아, 1997. 7.; 양정호, 2003; 이미나, 2001; 이현청, 2000; 중앙일보, 2001. 8. 16.; 홍기형, 1994)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유학을 위한 방안의 내용들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간추려보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 모두에 강력하게 작용한 성공요인은 친구관계 변인, 유학 후 진행 변인, 심리내적 변인이었다. 다시 말해, 유학지에서 친구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유학 후 진행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심리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가 유학생생활 적응에 중요하

게 작용하였다.

둘째, 조기 유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군 중 형제 수는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외동이인 유학생은 학업성취도에서, 그리고 두세 명의 형제를 둔 유학생은 심리적 적응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동이와 형제아들이 가지게 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외동이들은 높은 학업성취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는 점, 반면 형제가 있는 유학생의 경우는 유학생생활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들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환경을 가졌다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셋째, 수량화 방법론을 통한 양적 분석결과, 가정환경 변인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조기 유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에서는 흥미롭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유학생 자신이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음을 인지하는 것이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데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유학생 본인의 자각이 스스로 더욱 분발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수량화 방법론을 통한 양적 분석결과, 거주형태가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와 동반 유학을 와서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다. 유사한 결과가 질적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낯선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조기 유학생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그들의 유학생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수량화 방법론을 통한 양적 분석결과, 유학 전에 어느 정도의 영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특히 학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 유학에 대한 선행 연구(안병철, 1996; 정순진, 1996)나 여러 유학 관련 기사(뉴스플러스, 1997. 1. 30.; 동아일보, 2003. 12. 2., 2003. 12. 16.; 머니투데이, 2004. 5. 25., 2004. 5. 28.)에서 언급되어온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유학지에서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의 장벽을 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섯째, 유학 시기 또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유학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유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일곱째, 수량화 방법론을 통한 분석결과, 외국인 친구와 교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외국인 친구가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유학생일수록,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없거나 방과후에 한국인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학생일수록 유학생생활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친구의 중요성은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는 사례로 분류된 유학생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유학생들의 유학생생활 적응

에 큰 도움을 주는 친구는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하여 사회화 과정으로 가는 시기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 정신적인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유학지에서 어떤 친구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방과후 한국인 친구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유학지의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습득하여 학교생활을 포함한 현지에서의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제는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유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친구, 즉 한국인 친구와 외국인 친구는 조기 유학생들에게 있어 각각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한국인 친구와 외국인 친구와 있을 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생활에 미치는 친구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올바른 친구관계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유학지에서 교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시작한 유학지에서의 교외 단체나 동아리 활동은 조기 유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유학생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소속감을 얻으며, 유학으로 인해 상실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유학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홉째, 성격유형,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발달, 자기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EQ 등 조기 유학생들이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심리 내적 자원 또한 유학생생활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임이 양적, 질적 분석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이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조기유학에 있어서 부모 및 형제 등 가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유학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부터 유학생생활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부모부터 유학의 목표를 올바르게 가져서 유학생 자녀가 유학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작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녀의 바른 성장 뒤에는 부모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이 있어야 하듯 유학생생활도 부모가 얼마나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동반한 유학이건 아니면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시작한 유학이건, 처한 상황에 맞게 자녀를 지지해주고 지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유학생생활의 성공적인 출발과 결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사전 준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유학 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 유학생과의 면접에서 본 연구자가 ‘다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는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부가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 나라와 문화, 학교, 언어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했었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실제로 유학 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

셋째, 유학 시작 단계에서 경험해야 하는 문화충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을 가기 전에 미리 국내에서 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특히 유학 초기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학 이전에 여행이나 연수를 통한 해외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에 비해 유학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적응을 보이기도 했다.

넷째, 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과 유학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아직 미숙하여 부모나 주위 성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이 필요한 조기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유학지에 대한, 유학생생활에 대한, 그리고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지지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특히 홀로 유학하는 조기 유학생의 경우에는 타국의 유학생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학과 진로 등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유학지에서는 이러한 지지체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지지체계의 부재 내지 미비함이 그들의 유학생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적응 과정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은 우울감이나 다른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야기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비행이나 여러 중독 증상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조기 유학생들을 현지에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다양한 지지체계 및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겠다. 안병철(1996)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같이 한국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이 떠나는 국가인 경우, 지역별 적응 지원체계를 갖추고 현지 상담이나 지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종교단체, 현지의 한인 친목단체 등이 지원체제로 활용되고 있는(임명용, 2002) 상황에서 나아가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거시적 지원, 그 외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무리 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유학생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유학은 성공할 수 없다. 즉 유학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 준비된 자만이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명 중 7명이 실패하는 것이 조기 유학이며, 그 가운데 부모가 기대하는 성공적인 유학생은 1명이 채 안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이며, 발표력이 높고 창의적이며, 언어적성이 높은 학생들이 유학에서 성공한다는 교사들의 경험담(이미나, 2001)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낮은 환경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유학생들 중 적응에 필요한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성격유형 등 내재된 자원을 갖춘 유학생들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그 곳이 국내이든 외국이든 어디에서든지 자

기가 속한 사회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발달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량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여 어디에서건 속한 사회에 적응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기 유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간관계, 특히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그가 속해있는 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는 생활조건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일 것이며, 따라서 조기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미 새로운 환경에 처한 유학생은 새로운 적응을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를 올바른 사회적 대인관계, 특히 친구관계에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친구의 역할은 조기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만약 친구관계 형성이 부적절하여 이를 통한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래와의 끊임없는 부조화가 일어날 때 유학생들은 아마도 불안감, 불만족감, 좌절감 등을 갖게 되어 그가 처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아가 기대와는 달리 유학생생활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조기 유학생들이 유학 온 새로운 사회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은 현지에서 올바른 친구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곱째, 유학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유학에 성공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본 연구의 양적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낮은 언어와 문화 등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쉽지 않은 높은 학년에서 보다는 낮은 학년에서 유학이 시작되었을 때 적응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어릴수록 유학의 시기로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조기유학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한가지로 유학의 시기를 언급한 송인호(2001)에 따르면, 유학의 연령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유학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로 선택해야 하며, 대체로 고졸 이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을 할 경우, 언어와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부모나 친구들과의 유대가 단절될 수도 있으며, 이후 국내에 귀국하여 정착하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지적 역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유학생 본인의 개인적 특성, 능력, 지원체계 등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여덟째,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기 유학을 야기시키는 요인들 중에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있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도외시하는 획일적인 교육,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 학교폭력 등 한국의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조기 유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기 유학생과의 개별 면접에서 적지 않은 유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영어공부가 그 기간이나 비용에 비해 효과 면에서 유학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반응했었는데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조기 유학생들에게 있어 외국생활에서의 외로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 등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 그들이 낮은 생활환경과 학습환경에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본인의 준비,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조기 유학 문제는 이미 기사나 르뽀 형식으로 수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지만, 실제로 그들을 대상으로 유학에 관한 경험들을 밝히는 학술적 접근은 최근에야 시작됨으로써 아직까지도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유학 중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업적,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여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뉴질랜드 지역에 유학 중인 학생들에 한정된 제한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조기유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선행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특히 실제로 언어와 생활풍습, 문화 등이 다른 외국에서 유학 중인 조기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겪는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경험을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현장의 생생한 자료들을 수집해 양

적, 질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조기 유학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앞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들에게 조기 유학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조기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관점에서의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기 유학은 앞으로도 세계화, 국제화와 함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조기 유학의 효율성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조기 유학생의 유학생활에 작용하는 성공요인을 양적, 질적으로 밝혀내는데 일차적으로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조기 유학 현상을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기 유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조기 유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유학 중인 학생들이나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뉴질랜드 지역으로 이동한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유학과 관련된 보다 보편적인 탐색과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조기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전과 달리 오

늘날에는 유학 대상국의 다각화로 인해 비영어권으로의 유학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뉴질랜드 현지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적응하는 유학생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조기 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접근 역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시 말해, 부적응의 주요 요인 및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한 조기 유학과 조기 유학생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 유학 선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 의식과 귀인 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정택, 심혜숙 (1990). 성격유형검사의 한국 표준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3(1), 44-72.
- 김정택, 심혜숙 (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회.
- 김홍주 (2001). 조기유학(교육이민)의 실태와 바람직한 대처 시각. *서울교육*, 163,

- 12-16.
- 뉴스플러스. '중3 때 보내고 기숙사에 넣어라', 1997. 01. 30.
- 동아일보. '조기유학 길라잡이 上 - 실패하지 않으려면', 2003. 12. 2.
- 동아일보. '조기유학 길라잡이 下 - 현지적응 빨리 하려면', 2003. 12. 16.
- 머니투데이. '부자들의 성공적인 조기유학(1) - 자녀 교육', 2004. 5. 25.
- 머니투데이. '부자들의 성공적인 조기유학(2) - 현지 적응', 2004. 5. 28.
- 문용린 (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주최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회 자료집.
- 송인호 (2001). 조기유학 바람, 그 문제점과 처방. 서울교육, 163, 22-26.
- 신동아. '조기유학 열풍 정말 멧었나', 1997. 7.
- 안병철 (1996). 조기 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 조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4, 423-468.
- 양정호 (2003). 조기유학, 실태 및 해결책은? 새교육, 590, 72-75.
-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나 (2001). 우리 교육 현실에서 본 조기유학의 의미. 서울교육, 163, 17-21.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 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2.
- 이현청 (2000). 조기유학의 선결과제. 국회보, 402, 48-51.
- 이혜신 (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명용 (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정순진 (1996). 해외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덕 (2000). 한국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제로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전문 대학 논문집, 22, 173-198.
- 조명덕 (2002). 조기 유학 붐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상과 인식, 26(4), 355-152.
- 중앙일보. '조기유학 절대 보내지 마라'. 2001. 8. 16
- 최양숙 (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샤론 메리엄 (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1), 199 -220.
- 허명희 (1999). 수량화방법 I·II·III·IV. 서울: 자유아카데미.
- 홍기형 (1994). 조기유학생들의 해외유학에 관한 문제점 및 시사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9), 129-147.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윤경 (1995).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Lin, J. C. G., & Yi, J. K. (1997).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Issues and Program sugges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31(4), 473-479.
- Nathanson, J. Z., & Marcenko, M. (1995). Young adolescents' adjustment to the experience of relocation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9(3), 413-424.
- Offer, D., Ostrov, E., & Howard, K. I. (1982).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A Manual*. (3rd ed.) Chicago: Michareel Reese Hospital.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H., Offer, D., &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2), 93-111.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 448.
-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tice-Dunn, S., &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Westwood, M. J., & Barker, M. (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 comparison groups study of the peer-pairing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251-263.

1 차원고접수 : 2005. 9. 26.

수정원고접수 : 2005.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5. 12. 01.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Success of Studying Abroad for Young Korean Students in Newzealand

Young-Hee Kim

Dept. of Child Study, Dae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success of studying abroad for young korean students in Newzealand(35 elementary school students, 62 junior high school students, 42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Cronbach' a coefficient, quantification methods I,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 (1)There were 28 factors that affect a student's academic accomplishment. Thos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8 factor clusters including student's background, family environment, preparation before coming overseas, their life while studying overseas, motivation and personal thoughts of studying overseas, relationships with friends, recreation, psychological matters. The factor clusters with greatest effect were relationships with friends, preparation before coming overseas and psychological matters. (2)There were 24 factors that affected a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Within the factors, psychological matters, preparation before coming overseas an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gain, turne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3)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factors that helped students to succeed in studying overseas were as follows: sibling, iving with mother, parents thought on education, overseas experience before coming overseas, economic state of their family, mother's English level, period of studying. And also the student's belief in studying overseas, relationships with friends, experience of being neglected, amount of time studying, recreation, personality, confidence, ability to adjust and independence helped students to succeed.

Key words : a young student studying abroad, a academic accomplishment, a psychological adjustment

부록 1.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하위범주	내 용 예
형제관계	- 학교에서 돌아와서 키워들이 무시했던 것들을 동생하고 얘기할 때, 자기도 어땠다는 등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동생이 있어서 좋아요. 엄마하고도 이야기 하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동생과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도움이 되요. - 전 작년에 엄마랑 여기 왔는데, 언니는 저보다 먼저 유학 와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처음 와서 힘들었던 것을 많이 얘기해줬는데 제가 당한 것과 상황이 거의 똑 같았어요. 키워 애들이 아시아를 욕하는 것도 똑같고. 그럴 때 언니가 대처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라고. 나더러 개네들을 이기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것 밖에 없다고. 그리고 제가 수학을 좀 못하니까 언니가 많이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언니 때문에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 여기 맨 처음 와서 적응할 때는 가족 밖에 없잖아요. 학교에 간 처음 3일 정도는 맨 날 눈물나고 그래서 맨 날 울고 그랬었어요. 어렵고 무섭고 그랬을 때, 언니와 같은 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언니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키워 애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언니는 저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큰 언니는 제가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어 혼나서 뭐라고 그러면 언니도 혼난 적 있다고, 너만 혼난 것 아니라고 항상 위로해 줬어요. 그 때는 서로 엄청 감싸주었어요. 지금은 영어도 잘하게 되었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외동딸이거나 혼자 있거나 동생들만 있는 그런 애들은 다들 저보고 자기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 동생들이 있어 좋아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엄마하고 싸우면 동생이랑 놀고 동생이랑 싸우면 엄마랑 놀고. 동생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와의 동거	- 먼저 엄마가 상담해준 거요. 학교 다녀왔을 때 슬픈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 있을 때 도움이 된 것 같구요, 그리고 아빠는 음 ~~~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엄마랑 함께 지내는 것도 공부하는 데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유학을 와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부를 너무 안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놀 때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엄마와 동생이 왔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좀 안심도 되었고, 엄마가 오면서 과외도 하고 공부도 더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엄마가 함께 있는 게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엄마가 있어서 나쁜 쪽으로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쨌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안계시니까. 제 나이 때는 그리 나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언니 나이 정도만 해도 언니 친구들 중에는 새벽에도 나돌아 다니고 그런대요.
부모님의 자녀 교육관	-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보러 다니고, 아빠랑 매일 통화하면서 우리 문제로 의논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되었고, 엄마도 아빠도 공부만 하라거나 하지 않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 지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고맙죠. - 저희 엄마 아빠는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시구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별로 혼내시지도 않아요.

부록 1. 계속

하위범주	내 용 예
외국생활 경험	- 그래도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바로 여기로 유학 온 다른 한국 유학생들 보다는 적응하는데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친구들도 잘 못 사귀고 쑥스러워서 뭘 잘 못했는데,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지 뉴질랜드에 와서는 새로운 경험이 그 전처럼 두렵지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에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교성도 좋아지게 되었고, 말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 저는 중국에서 부모님들이랑 있다가 여기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유학왔거든요. 성격이 밝은 편이긴 하지만 처음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부모님이랑 동생이 있어도 여기서 보다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부모님이 안계셔도 적응하는데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의 경제적 수준	- 저는 엄마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못 느꼈죠. 어느 날 인가 엄마가 엄청 화가 나서서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널 유학시키는데’ 하시면서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잡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 우리 집은 다른 애들처럼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여기서 일을 하시고, 저도 시간이 되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돈도 아껴서 쓰고, 다른 애들처럼 이것저것 과외를 못해도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전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하고 싶어요. 집에 돈이 많아 유학 와서 돈이나 평평 쓰고 다니는 애들 보면 이해 안될 때도 많아요.
어머니의 영어수준	-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로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가족 중에 제일 영어를 잘하니까, 서류 같은 것을 쓰는 것도 은행 일을 보는 것도 다 하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영어도 많이 늘고 그런 것 같아요. - 엄마를 많이 도와줘야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집에 전기가 끊기든지 동생들 인터뷰해야 할 일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제가 다 했어야 했어요. 집을 구하는 것도 저한테 시키고. 엄마가 자꾸 요구해서 자꾸 해야 했는데 그게 연습이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해 보겠어요. 제 나이 애들이 집을 언제 구해보고, 전기세 끊는 걸 누가 해 보겠어요. 여기서 사니깐 다 경험하고 그러는 거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록 II. 유학관련 변인의 영향

하위범주	내 용 예
유학에 대한 자신의 신념	-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이 공부했어요.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든 어쨌든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기까지 보내 주셨는데 한 가지라도 더 얻어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얻은 것이 없이 그냥 가면 나 자신도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 제가 부모님께 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왔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어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영어공부 준비기간	- 저는 영어를 옛날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를 접하고, 레슨도 받았고. 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오니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제대로 영어를 공부한 것은 4년 정도. 3-4년 정도 공부를 했고, 그 전에는 비디오를 보면서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별 도움이 안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학을 처음 와서 너무 쇼크 받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영어를 헛배웠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 한국에서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것은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광화문에 있는 학원에서 2년간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미국식 영어를 배웠는데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지우개를 러버, 미국식은 이레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려서 답답했고, 처음에 제 발음이 미국식이니까 애들이 웃기다는 듯이 비웃고 그랬거든요. 처음 여기 오면서는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깐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가요. 유학 와서 여기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제가 스스로 배우는 게 머리에 더 잘 들어오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현지에서의 유학한 기간	- 유학 얘기는 제가 먼저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유학가고 싶다고. 그때는 그게 웬지 너무너무 좋게 보였어요.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캐나다랑 일본이랑 그런 데를 갔다 오면서 유학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의논해보시더니 저를 여기로 보내주셨는데, 여기로 유학 와서 1년이 지날 때까지 후회를 엄청 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하고. 후회를 하다가 한 3개월 지나니 후회를 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3년 지남)는 그런 생각 안하는데 그때는 되게 그랬어요. -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힘들었어요. 언니가 먼저 와 있는 바람에 따라 오게 되었는데 저는 별로 안 오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친구도 많고 아빠도 계시고. 그래서 한동안은 힘들 때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좋아요. 여기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이제는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안해요. 처음에는 엄청 했는데.

부록 III. 일상생활 변인의 영향

하위범주	내 용 예
무시나 차별받은 경험	- 유학을 처음 왔을 때는 너무 싫었어요. 아무도 이야기 안하고 엄청 못되게 굴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영어숙제를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어요. 다른 남자 친구에게도 숙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말해줬잖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놀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차갑고 못되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그랬더니 영어도 더 잘 들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어요. - 제가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키위들은 아시안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아시안들을 무시하면 가서 싸우기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더 가깝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고 키위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관계	- 저의 경우에는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친구가 없고 혼자 지냈어야 했다면 적응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오기 전 성격이 참 안 좋았거든요. 내 생각을 많이 표현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유학 와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랑 성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변화되었고요, 반에서 다른 애들이랑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 조금 더 활발해지고 말 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한국 애들과 잘 안 놀고 그랬어요.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활발한 키위 애들과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 성격과 영어 실력이 동시에 발전되었다고 생각해요. - 친구도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애들에게는 솔직히 별로 도움을 안 받았고요, 처음 1년 동안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건 키위 친구들이예요. 제가 과제 같은 것을 할 때 문법도 체크해주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해주고, 편지 같은 것도 써주고, 집에 놀러가기도 하구요. 착한 애들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여기 맨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애들이 없어서 키위 애들이랑 놀았는데, 키위 애들은 친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한국 애들이랑 노니깐 제 성격도 변하고, 옛날에는 진짜 너무 말도 없고 재미없는 애였거든요. 그러다가 인터에 들어왔는데 1년 정도는 한국 애들이랑 노느라고 영어를 잘 못했어요. 인터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위 애들이랑도 놀고 한국 애들이랑도 놀았는데, 키위 애들과는 영어 때문에 노는 거였고, 한국 애들은 잘 맞아서 재밌게 놀았어요. -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귀를 열기 위해서 한국 아이들과 노는 것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외국 애들이랑 놀려고 애썼어요. 수업 시간과 키위 애들이 얘기할 때는 영어만 들으려고 하고, 그 뜻을 해석하려고 집중했어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은 계속 듣다 보니까 외워 지더라고요.

부록 IV. 심리내적 변인의 영향

하위범주	내 용 예
자신감	- 그냥 모든 공부를 다 열심히 했어요. 미술, 수학 같은 것은 한국 애들이 잘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개네들(키위 친구들)보다 더 앞서 나갈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성적이 더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했구요. 여기 키위 애들은 별로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 옆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자신감이죠. 절대 굴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딱딱 말하고, 옆에서 애들이 웃든 말든 상관 안하고 딱딱 말하는 것. 자신감이 있었고,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고 창피해 하지 않고 딱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독립심	- 제 생각에 전 상당히 독립심이 강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독립심을 키웠죠. 어쨌든 이런 제 성격도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적어도 저는 덜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 한국에서도 엄마가 많은 것을 혼자 하게 했고,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게 싫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독립적으로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구요.
성격특성	- 저는 유학을 오기 전 성격이 참 안 좋았었거든요. 내 생각을 많이 표현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유학 와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랑 성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변화되었고요, 반에서 다른 애들이랑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 조금 더 활발해지고 말 수가 늘었어요. 중략..그리고 제 생각과 판단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잘 했기 때문에 성격도 변하고 여기에서 그런대로 잘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친구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많이 따지고 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로 유학 오게 된 것은 여기로 유학 오기 전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생각에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유학 오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유학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구요. 공부를 매일 즐겨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면서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성격이고, 그래야지 잠을 자는 성격이라, 그런 성격 때문에 학교 수업도 끝까지 하고, 공부를 더 했어요. 여러 가지로 답답했을 거잖아요. 제가 답답하니깐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강하거든요. - 여기서 중국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 뉴질랜드는 중국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공부는 한국처럼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한국처럼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개방적이거든요. 애들도 생각이 개방적 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랑 비슷해요. 제가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혼자 오게 되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 제 성격은 내성적이지는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좀 내숭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방금 만났어도 얘기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제 성격 때문에 키위들에게 말을 걸고, 뭐라 할까 좀 적극적으로 키위 애들을 따라 다니고 그랬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눈치로 알아듣고. 키위 애들 옆에서 뭘 하다보면 내가 틀린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부록 IV. 계속

하위범주	내 용 예
적응력	- 전 적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로 유학 왔을 때는 너무 실망했었어요. 학교 시설도 별로이고, 애들도 맨발 벗고 다니고, 옷도 빵구 나고 후져 보이고. 한국에서 영어를 좀 배우다 왔거든요. 몇 년.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유학 와서 처음에는 너무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였지요. 애들(키위 친구들)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깐, 불편하니깐 개네들끼리 놀고, 한국 애가 한 명 있긴 있었는데 개는 영어를 너무 잘해 키위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고, 숙제를 못 알아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따라 다녔어요. 키위 애들어요. 안 놀아줘도 그냥 계속 따라 다녔어요. 말은 못해도 개네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그냥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애, 앞에 있는 애가 하는 걸 보고요. 개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나서 제 나름대로 똑 같이 끼워 맞추면서 했죠. 영어는 그냥 대충 짐작으로 알아들었고, 말이 잘 안되니까 그냥 같이 뛰어 놀았어요. 술래잡기 같은 거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선물 같은 것, 한국의 스티커 같은 것도 주고 그랬어요. 친해지려구요. - 제가 적응력이 있나 봐요. 엄마가 그랬는데, 한국에서 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왔을 때도 잘 적응했으니까 외국에 가서도 잘 적응할거라고 하셨어요. 힘들고 엄마가 보고 싶어 울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 가면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별로 어려움게 없어요.